

2006학년도 6월 모의평가시험 문제

가. 출제특징 및 경향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되었으나 체감 난이도는 다소 높을 것 같다. 한문과 평가요소별 배분은 예년과 비슷하게 출제되었으며(한자, 한자어, 성어 : 단문 : 장문 : 한시 → 7:8:12:3) 지문도 교과서에 있는 것이거나 그와 유사한 수준의 지문이 나왔다. 다만 교과서 중 심화과정에 나오는 ‘사설(師說)’이나 ‘적벽부(赤壁賦)’ ‘대학(大學)’ 등의 명문(名文)에서 출제된 것이 수험생들에게 다소 어렵게 느껴질 것 같다.

또, 문장의 형식이라던가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허자’ 문제가 빠지고 전체적으로 일정 수준의 독해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어서 단기간에 공부한 수험생들은 다소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유형으로는 일화의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낸 문제와 문맥과약을 통해 빠진 한자를 유추하는 문제가 돋보였다.

교과서에 나오는 글은 반복학습을 통해서 일정한 수준의 독해력으로 완성해야만 좋은 점수를 기대할 수 있겠다.

나. 한문영역 풀이 및 해설

1. ②

한자의 기원을 묻는 문제이다. 거북이 그림을 보고 상형문자인 ‘龜’를 찾아야 한다.

2. ③

부수와 총획수를 제시하고 이에 알맞은 한자를 찾는 문제이다.

- ① 盲(맹) 눈멀다. 目 8획
- ② 眼(안) 눈. 目 11획
- ③ 看(간) 보다. 目 9획
- ④ 直(직) 곧다. 目 8획
- ⑤ 着(착) 붙다. 羊 11획

3. ③

한자의 표기가 잘못된 한자어를 찾는 문제이다.

- ③ ㉠宇州(집 우, 고을 주) → 宇宙(집 우, 집 주)

4. ④

문맥상 한자의 표기가 바르게 된 것을 찾는 문제이다.

① 화목(和睦) ② 한복(韓服) ③ 국기(國技) ⑤ 대비(對備)

5. ④

성어의 속뜻을 묻는 문제이다.

* 刻舟求劍(각주구검) : 세월의 변천이나 사물의 변화를 무시하고 지난 일에만 집착하는 어리석음

6. ⑤

성어에 나오는 동물들을 찾는 문제이다. 성어의 내용을 알아야만 해결 가능

* 鶴首苦待(학수고대) 학의 목처럼 길게 빼어 괴롭게 기다리다

7. ③

성어와 속담을 연결하는 문제

①雪上加霜(설상가상) : 었친 데 덮친 격

②草綠同色(초록동색) : 가재는 게편

③積小成大(적소성대) : 티끌 모아 태산

④我田引水(아전인수) : 제 논에 물대기

⑤坐井觀天(좌정관천) : 우물 안 개구리

8. ⑤

한자어의 짜임 중 병렬관계를 묻는 문제

* 少年易老學難成, 一寸①光陰不可輕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가 어려우니, 짧은 시간일지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

* ①光陰 : 빛과 어둠 → 시간, 세월 (병렬관계 중 대립관계)

① 登校(등교) : 학교에 가다 (술보)

② 放火(방화) : 불을 지르다 (술목)

③ 花開(화개) : 꽃이 피다 (주술)

④ 大海(대해) : 큰 바다 (수식)

⑤ 春秋(춘추) : 봄 가을 (병렬)

9. ②

두 문장의 對句(대구)를 이용하여 괄호 안의 한자어 찾기

* 無道人之短 : 남의 단점을 말하지 말고,

無說己之長 : 자기의 장점을 말하지 말라

10. ③

제시한 글을 해석하여 중심내용 찾기

* 滿招損, 謙受益 : 교만함은 손해를 부르고, 겸손함은 이익을 받는다

11. ①

제시한 단문을 해석하여 문맥 파악을 통해서 괄호 안의 한자 유추하기

* 生我者爲父母, 我之所生爲子女, 父之父爲祖, 子之子爲孫

나를 낳은 자는 부모이고, 나에게서 태어난 것이 자녀이고, 아버지의 아버지는 할아버지이며, 자식의 자식은 손자이다.

12. ②

제시한 단문의 중심내용을 나타낸 한자 찾기

* 禍福無門, 惟人自召 : 재앙과 복은 문이 없고, 오직 사람이 스스로 부른다.

→ 재앙과 복은 그 사람의 언행에 달려 있으므로 쳐신을 삼가야(愼:삼갈 신)한다.

13. ①

문장에 쓰인 한자의 통의자(通義字) 찾기

* : “君子之過也, 如日月之食焉. 過也, 人皆見之. ①更也, 人皆仰之.”

자공이 말하였다. “군자의 허물은 일식이나 월식과 같아서 잘못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볼 수가 있고 (잘못을) _____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본다.”

14. ②

제시한 단문을 해석하여 문맥 파악을 통해서 괄호 안의 한자 유추하기

* 登山則思學其高, 臨水則思學其清, 坐石則思學其堅, 看松則思學其貞.

산에 오르면 그 높음을 배우기를 생각하고, 물에 다다르면 곧 그 맑음을 배우기를 생각했으며, 돌에 앉으면 곧 그 견고함을 배우기를 생각했으며, 소나무를 보면 곧 그 절개를 배우기를 생각했다.

15. ①

글에서 제시한 인물에 대한 평가

* 世有①伯樂然後, 有千里馬. 千里馬常有, 而伯樂不常有.

세상에 백락이 있는 후에야 천리마가 있다. 천리마는 항상 있으나 백락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 아무리 뛰어난 천리마가 있더라도 그의 뛰어난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는 백락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 천리마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잡설’ -한유-

<16~17> 해석

옛날에 밝은 덕을 천하에 밝히려는 사람은 먼저 자기의 나라를 다스렸고, 먼저 그

나라를 다스리려는 사람은 먼저 자기의 집안을 바로잡았고, 자기의 집안을 바로 잡으려는 사람은 먼저 자기의 몸을 닦았고, 자기의 몸을 닦으려는 사람은 먼저 자기의 마음을 바로 하였고, 자기의 마음을 바르게 하려는 사람은 먼저 자기의 뜻을 성실히 하였고, 자기의 뜻을 성실히 하려는 사람은 먼저 앎을 이르게 하였다.

16. ④

문장에 쓰인 한자어구의 풀이를 묻는 문제이다.

* 明明德 : 밝은 덕을 밝히다

17. ⑤

문장에 쓰인 한자어구의 풀이를 묻는 문제이다.

* 誠其意 : 자기의 뜻을 성실히 하다

<18~20> 해석

옛날의 배우는 자는 반드시 스승이 있었다. 스승이라 하는 것은 도(道)를 전하고 학업을 주고 의혹을 풀어 주기 위한 것이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아는 것이 아니니, 누가 의혹이 없을 수 있겠는가? 의혹이 있으면서 스승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의혹됨은 끝내 풀리지 않는다. 나보다 먼저 나서 그 도를 듣기를 진실로 나보다 먼저라면, 내가 좇아서 그를 스승으로 삼을 것이고, 나보다 뒤에 났다 하더라도 그 도를 듣는 것이 또한 나보다 먼저라면, 나는 좇아서 그를 스승으로 삼을 것이다.

18. ⑤

문장에 쓰인 한자어구의 풀이를 묻는 문제이다.

* 生而知之者 : 나면서부터 아는 사람

19. ①

문맥 파악을 통해서 괄호 안의 한자 유추하기

20. ②

문장에 쓰인 한자의 뜻

* 固(고) 1.굳다 **2.진실로**

<21~23> 해석

금사 김성기는 왕세기에게 거문고를 배웠는데, 매번 신성(새로운 소리)을 얻을 때마다 왕세기는 감추고 전해주지 않았다. 성기가 밤마다 와서 왕세기의 집 창문 앞에 붙어 몰래 듣고서 다음날 아침 능히 읊기어 베껴서 어긋남이 없었다. 왕세기가 진실로 그것을 의심하여 이에 밤에 거문고를 타다가 곡이 아직 반이 되지 않아 갑

자기 창문을 밀치니 성기가 놀라 땅에 떨어졌다. 왕세기가 이에 크게 기특하게 여겨 지은 곡을 모두 전해주었다.

21. ③

글의 내용과 관계없는 그림을 찾는 문제이다.

22. ①

문장에 쓰인 한자의 뜻

* 추가 여기서는 문맥상 ‘기특하다’로 해석된다.

23. ②

글을 해석하고 주인공의 태도를 파악하는 문제

<24~27> 해석

나그네도 또한 저 물과 달을 아는가? (물은) 흘러가기를 이처럼 하지만 일찍이 (완전히) 가버린 적이 없으며, (달은) 차고 기울기를 저처럼 하지만 끝내 소멸하거나 커지지 않는다. 대개 장차 변하는 것으로부터 (사물을)보면 천지도 일찍이 한순간도 그대로 있지 않았으며, 그 변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본다면 사물과 내가 모두 다함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또 무엇을 부러워할 것인가?

24. ④

어구풀이

*嘗(상) 1. 일찍이 2. 맛보다

25. ③

한자의 다양한 쓰임의 한자어 적용

*將(장) 1. 장수 2. 장차 3. 거느리다

① 將軍(장군) ② 將卒(장졸) ③ 將次(장차) ④ 將帥(장수) ⑤ 將星(장성)

26. ⑤

한자의 음과 뜻 알기

*曾(증) 일찍이

27. ①

문장해석

*自其不變者而觀之 : 그 변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본다면

<28~30>

山僧貪月色(산승탐월색) 산 속의 스님이 달빛을 탐하여,
并汲一瓶中(병급일병중) 하나 가득 병 속에 아울러 길었네.
到寺方應覺(도사방응각) 절에 이르면 바야흐로 깨달으리라.
瓶傾月亦空(병경월역공) 병을 기울이면 달빛 또한 텅 비는 것을

이 시는 불교의 진리인 '색즉시공공즉시색(色卽是空 空卽是色)'을 달을 통해 묘사해 내고 있다. 스님이 우물에 물을 길러 갔다가 우물 속에 비친 달빛이 너무 아름다워 병 속에 함께 길었다. 그러나 절에 도착하여 병의 물을 기울이자 달도 함께 없어졌다. 인간 욕심의 허망함과 깨달음이 주제이다.

시간적 배경은 밤이며 형식은 5언절구이며 운자는 中, 空이다.

洛陽城裏見秋風(낙양성리견추풍) 낙양성 안에서 가을바람을 맞으니
欲作家書意萬重(욕작가서의만중) 집에 편지를 쓰자니 생각이 만겹이라
復恐忽忽說不盡(부공충충설부진) 바쁘고 바빠 사연을 다 쓰지 못했나 염려되어
行人臨發又開封(행인임발우개봉) 행인이 길을 떠날 때 다시 봉한 것을 열어보네

객지에서의 간절한 고향생각을 읊고 있다. 계절적 배경은 가을이며 형식은 7언절구에 운자는 風, 重, 封 이다.

28.

시어풀이

* 說不盡 : 할 말을 다 못했을까

29. ⑤

시어의 해석순서

30. ⑤

한시의 기초적인 형식과 특징 이해하기

(가)시의 주제는 인간 욕심의 허망함과 깨달음이다.